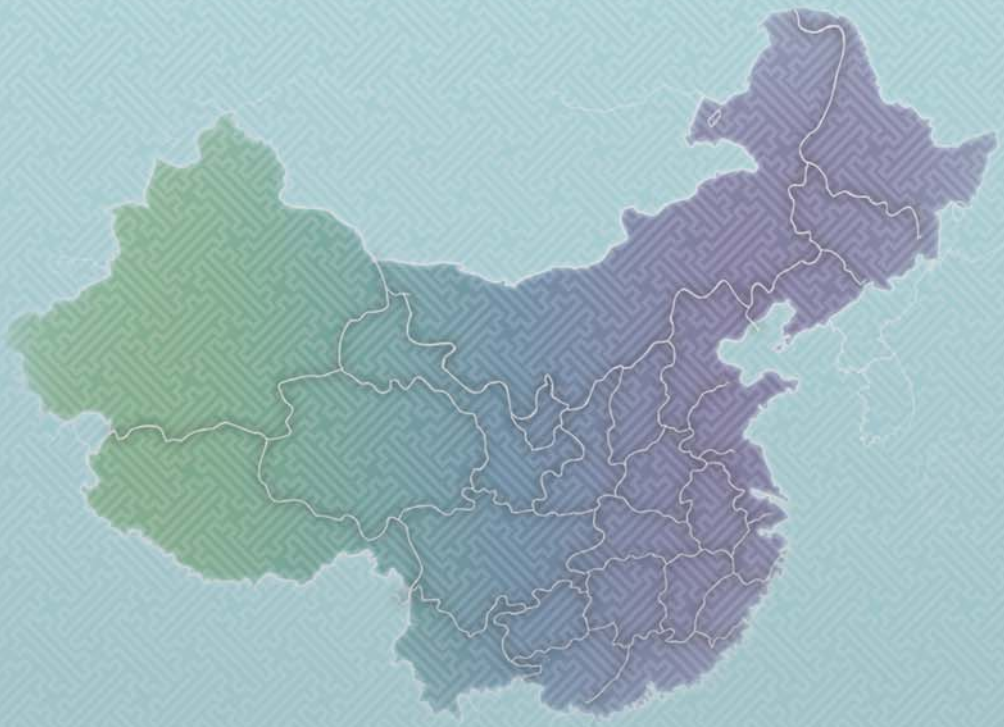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2012년 3월 22일 | Vol. 3 No. 4
ISSN 2093-3282

'12·5규획기간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노수연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1.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의 추진경과
2. 12 · 5규획기간의 중점추진목표
3. 국제금융센터 건설 관련 최근 동향
4. 평가

주요 내용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1월 30일 '12 · 5규획기간 상하이시의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함.

- 2009년 '의견'에서는 상하이시에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력과 인민폐의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할 것을 최종 목표로 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상하이시를 인민폐 관련 상품의 혁신, 거래, 가격결정, 결제를 망라한 국제교역센터로 육성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의견'이 추상적인 원칙과 목표만 제시했다면, '계획'에서는 최초로 일부 주요 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함.
- '의견'과 '계획' 모두 금융시장 시스템 건설을 첫 번째 핵심임무로 간주하고 있으며, '계획'은 특히 시장개혁과 국제화 수준 향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 '계획' 발표 이후 △ 장외주식거래시장인 상하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센터가 2월 15일 개장하고 △ 중국은행이 상하이시에 제2본부 설립을 추진하며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를 활발히 운용하는 등 '계획'에서 언급된 일부 세부방안이 최근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중국정부가 2009년 '의견'에 이어 '계획'을 발표한 것은 상하이시가 금융 분야에서 중국 국내의 여타 도시와는 차별되는 지위에 있으며, 상하이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분석됨.

▣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관한 논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세계적인 인민폐 교역센터가 되겠다는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홍콩과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의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보여줌.

1.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의 추진경과

■ 2009년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상하이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국무원은 2009년 4월 '상하이시의 서비스업 및 선진제조업 발전 가속화와 국제금융센터 및 국제항공·해운센터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推進上海加快發展現代服務業和先進製造業建設國際金融中心和國際航運中心的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상하이시를 2020년까지 국제금융센터 및 국제 항공·해운센터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음.

○ 1990년 11월 상하이 증권거래소 설립 이후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관련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2009년이 처음임.[1)]

- 같은 해 5월 상하이시 정부도 '의견'의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음.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12년 제4회 전국금융공작회의 석상에서 향후 금융개혁 발전의 8대 업무 중 하나로 금융의 대외개방 확대를 제시하면서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 의지를 재확인함.

- 대외개방 확대에는 국제적인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상하이시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됨.[2)]

글상자 1. 전국금융공작회의

- 1997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로서, 향후 5년간의 중국 금융업 전반적인 발전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향후 중요한 추세를 짐작할 수 있는 회의임.
- 제4회 회의는 2012년 1월 6~7일에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금융개혁의 8대 업무로 ▲ 금융 서비스 개선 ▲ 금융기관 개혁 심화 ▲ 금융 감독관리 강화 ▲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 ▲ 증권·선물거래시장, 채권시장, 보험시장 발전 ▲ 금융의 거시조절시스템 완비 ▲ 대외개방 확대 ▲ 금융 인프라 건설 등을 제시함.

자료: 『人民日報』(2012. 1. 8), 「全國金融工作會議在京召開 溫家寶講話」; 『人民日報』(2012. 1. 30), 「温家宝: 大力整顿金融秩序 严打高利贷和非法集资」.

■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1월 30일 '12·5규획기간 상하이시의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十二五"時期上海國際金融中心建設規劃, 이하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함.

---

1) 배상인(2011. 9. 28),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 상하이 평가 및 전망」, 『국제경제정보』, p. 2, 한국은행(제2011-44호).

2) 『人民日报』 (2012. 1. 30), 「温家宝: 大力整顿金融秩序 严打高利贷和非法集资」.

2. 12·5규획기간의 중점추진목표

■ 2009년 '의견'에서는 상하이시에 2020년까지 중국 경제력과 인민폐의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할 것을 최종목표로 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상하이시를 인민폐 관련 상품의 혁신, 거래, 가격결정, 결제를 망라한 세계적인 센터로 육성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인민폐와 관련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인민폐와 관련된 5개 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 인민폐 국제 투융자센터 △ 인민폐 관련 상품 기준가격형성센터 △ 인민폐 관련 상품혁신센터 △ 인민폐자산관리센터 △ 인민폐국제지불결제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의견'이 추상적인 원칙과 목표만을 제시했다면, '계획'에서는 최초로 주요 지표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2010년 기준 세계 1위인 황금시장 현물거래량을 2015년에도 계속 유지하는 등 기존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강세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거래총액, 관리자산규모 등 전체 규모를 2010년의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채권시장과 보험시장, 금융파생상품시장의 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표 1. 12 · 5 시기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의 주요 지표 목표치

종류	지표	2010년	2015년
금융시장 규모	금융시장 거래총액[1]	386.2조 위안	1,000조 위안
	채권위탁관리잔액	세계 5위	세계 3위권
	황금시장 현물거래량	세계 1위	세계 1위
	금융파생상품거래량	–	세계 5위권
	보험시장 보험료 수입[2]	695억 위안	1,400억 위안
	은행카드 은행간(跨行) 거래액	10조 위안	25조 위안
	은행카드 소비액이 사회소비재 총소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3]	–	50%
금융 국제화 정도	상하이 금융시장에 참여한 해외투자자 규모	작은 편	현저히 확대
	상하이 금융시장의 국제적 영향력	전반적으로 작은 편	상하이 증권시장 주요지수, 대규모 주요 상품 선물가격의 국제적 영향력 현저히 상승
금융서비스 기능	금융시장의 직접융자액이 사회융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16.7%	22%
	관리자산규모	약 15조 위안	30조 위안
금융발전 환경	금융업 종사자	24.5만 명	32만 명
	금융발전환경의 국제적 경쟁력	중국 내 선두	현저히 증강. 금융법률, 세수, 감독 관리 등을 국제관례에 맞춤

주: 1) 외환시장 거래액 제외.
2)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새로운 통계 기준에 따라 유니버설보험과 변액보험은 제외.
3) 도매형 주요상품 거래 및 부동산 거래 제외.
자료: 國家發展與改革委員會(2012), 「"十二五"時期上海國際金融中心建設規劃」.

■ '의견'과 '계획' 모두 금융시장 시스템 건설을 첫 번째 핵심임무로 간주하고 있으며, '계획'은 주요 임무별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 특히 시장개혁과 국제화 수준 향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 금융시장 개혁혁신의 경우, 항공·해운 관련 금융과 무역융자, 소비금융을 발전시킬 것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이는 상하이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개 국제센터 건설전략, 즉 세계적인 금융, 항공·해운, 무역, 경제센터 건설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소비와 관련해 자동차, 가전, 디자인, 인테리어, 교육, 문화, 관광, 의료보건 등 소비영역의 금융업무를 발전시키고, 자동차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회사를 발전시킴.

○ 중소기업, 문화 및 창의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금융을 발전시킬 계획임.

- 국제화수준 향상의 경우 △ 중국 A주 시장에 외국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국제판(國際板, international board)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설립하고, △ 국외 인민폐 자금의 환류(還流) 채널을 확대해 외국금융기관이 인민폐를 중국 국내 채권 및 기타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표 2.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 관련 주요 계획 내용 비교

	국무원 '의견'(2009)[1]	상하이시 '실시의견'(2009)[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2·5규획'(2012)[3]
최종 목표	2020년까지 중국 경제력과 인민폐의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금융센터 설립	'의견'과 동일	2015년까지 세계적인 인민폐 상품의 혁신, 거래, 가격결정, 결제 센터로서의 지위 확립
주요 임무	- 금융시장시스템 건설강화 - 금융기관 및 업무시스템 건설 - 금융서비스 수준 향상 - 금융발전환경 개선	- 금융시장시스템 건설강화 - 금융기관시스템 건설강화 - 금융상품 혁신 및 업무발전 - 금융대외개방 추진 - 금융서비스시스템 완비 - 금융발전환경 개선	- 금융시장시스템 완비 - 국제경쟁력과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구시스템 완비 - 인민폐 국제지불결제센터 건설을 중점으로 현대적인 금융인프라 건설 가속화 - 금융시장 개혁혁신을 중점으로 금융센터의 경제, 사회 발전 기여능력 향상 - 인민폐 국제투융자센터 건설을 중점으로 금융의 국제화 수준 향상 - 제도건설을 중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발전환경 조성

주: <실시의견> 발표 후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 추진 조례>를 제정해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자료: 1) 国务院(2009), 「国务院关于推进上海加快发展现代服务业和先进制造业建设国际金融中心和国际航运中心的意见」.
2) 上海市人民政府(2009), 「市政府贯彻国务院关于推进上海加快发展现代服务业和先进制造业建设国际金融中心和国际航运中心意见的实施意见」.
3) 发改委(2012), 「"十二五"时期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规划」.

'12 · 5규획기간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 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3. 국제금융센터 건설 관련 최근 동향

■ 상하이시 정부는 2월 20일 금융업무회의와 2월 22일 상하이국제금융센터 건설업무추진팀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상하이시 금융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를 논의함.

-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를 위해 2012년 100건의 중점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 여기에는 금융시장시스템 건설, 금융관련기관의 집적, 금융혁신, 금융발전환경 조성, 대외개방, 인재유치 등이 포함됨.[3)]

○ 금융시장시스템 건설의 경우 △ 상하이증권거래소, 상하이선물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상하이황금거래소, 은행간 시장 등 기존의 상하이 소재 국가급 금융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며 △ 국가금융관리부처의 지원을 받아 보험거래소, 신탁등기서비스시스템, 어음거래센터 등 전국적인 시장조직을 준비하며 △ 상하이연합재산권거래소(上海聯合産權交易所) 등 정부 금융관리부서 소관이 아니면서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시장조직을 준비할 것임.

○ 금융기구의 경우, 상하이은행 A주 발행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상하이농촌상업은행과 동방증권도 상장을 준비 중임. 또한 상하이국제그룹(上海國際集團) 산하의 자회사들도 지분구조를 정리 중임.

글상자 2. 상하이국제그룹(SIG)

- 상하이시 정부의 수권을 받아 2000년 4월 설립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요 기능은 투자 및 다수 지분 보유, 자본경영, 국유자산관리이며,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산하에 상하이국제신탁, 상하이증권, 상하이국유자산경영유한공사, 상하이국제그룹(홍콩)유한공사 등 13개의 자회사가 있고, 푸둥발전은행, 상하이농촌상업은행, 궈타이쥔안증권(國泰君安證券), 안신(安信)농업보험, 다중(大衆)보험 등의 제1주주임.

자료: 상하이국제그룹 홈페이지(http://www.sigchina.com).

■ 장외주식거래시장인 상하이 비상장기업 주식위탁거래센터를 2월 15일 개장함.[4)]

- 장외주식거래시장(OTC)의 일종인 상하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센터(上海股權托管交易中心, Shanghai Equity Exchange)를 2월 15일 장장하이테크단지(張江高科技園區) 내에 개장함.[5)]

---

3) 『中国联合商报』(2012. 3. 2), 「沪力争十年建成国际金融中心」.

4) 『东方早报』(2012. 2. 16), 「上海股权托管交易市场启动」.

5) 거래시장의 현판식은 2010년 7월에 했으나, 1년여의 정비를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음.

○ 거래대상기업은 상하이, 장삼각 및 기타 지역의 과학기술형,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이며, 2012년 3월 9일 현재 한성해양장비기술(漢盛(上海)海洋裝備技術股份有限公司), 상하이 중자(上海中加飛機機載設備維修股份有限公司) 등 장장하이테크 단지에 입주한 신산업 기업 19개가 회원사임.

- 비상장 주식회사를 위해 주식의 위탁, 등기, 양도, 결산결제, 이익배당, 융자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이 거래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이를 육성하는 역할을 함.
- 장외주식거래시장은 베이징 중관촌(中關村)하이테크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선전거래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식양도대리업무시장이 있으나,[6] 상하이의 장외시장은 △ 등록자금이 500만 위안으로 낮춰졌고 △ 기업존속기간이 중관촌의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됨.[7]
- '계획'에서도 새로운 금융시장형태의 하나로서 상하이 비상장기업 주식위탁거래센터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과학기술형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모색함.
- 상하이시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했으며, 현재는 상하이 금융서비스판공실(金融服務辦公室)에 귀속되어 있음. 그러나 상하이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인 장외시장을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행이 상하이시에 제2본부 설립을 추진 중임.

- 중국은행(본부 베이징)은 3월 20일 '중국은행 상하이 인민폐거래업무본부(上海人民幣交易業務總部)'를 푸둥신구에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사실상 제2본부가 상하이시에 설립되는 셈임.
- 이로써 4대 국유은행[8] 중 상하이에 제2본부를 설립한 첫 번째 은행이 될 전망이며, 다른 국유은행도 상하이에 제2본부 설립 신청을 하고 관계부처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임.
- 이번 '계획'에 따라 상하이시가 2015년까지 인민폐 결제센터가 될 경우 향후 인민폐 결제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주요 은행의 상하이시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음.[9]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를 활발히 운용하고 있음.

- 국가외환관리국은 3월 14일 10개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투자한도를 배당하면서 타일랜드은행,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의 투자한도를 3억 달러씩 배당한다고 발표했음.[10]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란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중국 본토 증권거래시장에 투자하기에 앞서 중국정부로부터 얻어야 하는 투자 자격을 말함.

---

6) 중관촌 비상장사 지분 대리 양도 시장을 '신삼판(新三板)' 시장이라고 칭함.

7) 『国际金融报』(2012. 2. 16), 「沪版OTC 19家企业挂牌交易」.

8) 4대 국유은행은 공상(工商)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임.

9) 『华夏时报』(2012. 3. 10), 「中行第二总部率先挂牌 沪国际金融中心倒逼银行掠地」.

10) 『中国经济网』(2012. 3. 14), 「多国中央银行获准进A股市场 QFII重仓中国股票」.

○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은행간 채권시장 참여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주식과 함께 위안화 채권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었음.[11)]

- 국가외환관리국은 2003년 QFII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 3월 9일까지 총 129개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 총 245억 5,000만 달러 투자한도를 배정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 현재까지 23개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 29억 1,000만 달러를 배정했음.[12)]

○ 2012년 1~3월까지 배정된 총 금액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QFII 제도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2·5규획시기(2011~2015년)에 QFII의 투자 규모와 투자범위가 더욱 확대될 계획임.

4. 평가

■ 중국정부가 2009년 '의견'에 이어 '계획'을 발표한 것은 상하이시가 금융 분야에서 중국 국내의 여타 도시와는 차별되는 지위에 있으며, 상하이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분석됨.

-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금융센터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표 3 참고), 국가 차원에서 승인, 발표한 금융센터 건설계획은 상하이시가 유일함.

○ 중국 국내에 몇 개의 금융센터가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상하이뿐만 아니라 선전, 베이징, 충칭, 시안 등에도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센터는 국내 지역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므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한 지역에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음.[13)]

○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중국금융발전보고』(2011)에 따르면, 2010년도 중국 지역별 금융환경의 평가 결과, 상하이가 0.743으로 1위, 저장성이 0.724로 2위, 베이징이 0.715로 3위를 차지함.[14)]

- 상하이시에서 추진 중인 4대 센터 중 중앙정부는 2009년 금융과 항공·해운센터 건설을 국가급 계획으로 승격하여 인정하였고, 이 중에서 2012년 금융센터에 관한 계획을 가장 먼저 발표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상하이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11) 『아시아경제』(2012. 3. 14), 「한은·KIC 주식투자 중국으로 눈 돌린다」.

12) 외환관리국 홈페이지(http://www.safe.gov.cn), 「2012年以来QFII获批投资额度29.1亿美元」(검색일: 2012. 3. 14).

13) 『证券时报』(2012. 2. 24), 「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的三疑问」.

14) 『上海金融报』(2011. 12. 30), 「2011: 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再上新台阶」.

표 3. 중국 주요 도시별 금융센터 건설 목표

지역	도시	목표	지역	도시	목표
화북지역	베이징	국제금융센터	화남지역	푸저우(福州)	해협서안의 현대적인 금융센터(海峽西岸現代金融中心)
화동지역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샤먼(厦門)	해협양안의 금융센터
	난징	장삼각지역 금융센터	서부지역	충칭	장강 상류 금융센터
	항저우	장삼각지역 금융센터		청두(成都)	서부금융센터
	원저우	지역 전문금융센터(區域性專業金融中心)		쿤밍(昆明)	범아시아 국제금융센터(泛亞國際金融中心)
화남지역	선전	전국 금융센터		시안(西安)	서부지역 금융센터
	광저우	국제화된 지역금융센터(國際化區域金融中心)		우루무치(烏魯木齊)	중앙아시아지역금융센터

주: 톈진(天津)시의 경우 언론 및 학계에서 국제금융센터 건설논의가 있었으나, 황싱궈(黃興國) 톈진시 시장은 톈진시는 금융센터 건설 목표를 제기한 바 없으며, 대신 북부지역경제 중심에 상응하는 금융서비스시스템과 금융혁신기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大洋網』(2012. 3. 12),「專訪天津市市長黃興國：天津式改革」).

자료:『文匯報』(2012. 1. 9), 「部分城市構建金融中心目標」.

■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관한 논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세계적인 인민폐 교역센터가 되겠다는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계획과 내용이 다르며, 이는 홍콩과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의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보여줌.

- 중국 중앙정부는 2011년 8월 홍콩이 유일한 '인민폐의 역외(offshore) 금융센터'임을 명확히 했고, '계획'에서는 상하이를 2015년까지 세계적인 인민폐 상품 혁신, 거래, 가격결정, 결제센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힘.

○ 이로써 홍콩은 인민폐가 해외로 나가는 출구 역할을 하고, 상하이는 국제금융업이 인민폐로 중국에 투자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됨. 홍콩과 상하이는 인민폐의 국제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됨.[15]

- 특히 상하이는 이번 '계획'에서 인민폐 교역센터가 될 것을 천명함으로써 인민폐를 포함한 모든 주요 화폐를 거래하는 세계적인 금융센터 계획은 2015년까지 일단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상하이시가 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인민폐의 국제화와 금융시장 시스템의 자율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상하이시와 유사한 시간대의 경제권 안에는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 경제, 인력, 제도 환경 등 다방면에서 상하이보다 우월한 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경쟁에서 상하이가 국제적인 금융센터가 되기란 쉽지 않음. 특히 인민폐의 국제화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상하이 국제금융센터가 국제적으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차액을 노린 중국 국내 자금의 유출입만이 이루어지

15)『中新社』(2012. 2. 18),「两会前瞻:人民币国际化"双城突围"有待政策支撑」.

는 역내 금융센터로만 이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인민폐의 국제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금융업을 감독 관리하는 이른바 '1개 은행, 3개 위원회'의 금융감독관리모델은 거시적인 조절 및 집행에는 유리하지만 다양한 경제발전형태와 금융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불리하므로, 조정이 필요함.
- 또한 금융상품 및 시장의 다양화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의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거래액은 세계 3위, 황금현물거래량은 세계 1위, 선물거래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부 금융시장은 세계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나, 채권시장은 발전이 지체됨.

○ 일례로 중국은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 반해, 선진국은 채권시장이 자본시장의 70%를 차지함. 따라서 향후 우수 기업의 채권발행을 장려하면서 채권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음.[16) KIEP]

16) 2011년 12월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함.